



주 제:	“깨어 있는 삶”	“연중 제 19 주일 (다해)”	2007년 8월 12일
복음 묵상:	루가 12,32-48	지혜 18,6-9	히브 11,1-2.8-19]

분노와 미움, 그리고 우울이라는 도둑에게 소중한 마음을 털린 우리는 이야기 속의 집주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의 옷을 입은 도둑이 오늘날 하느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속을 한껏 휘저으며 다니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는 있으나, 영혼으로 깨어 살지 않은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음이 우리의 본연임을 말씀하시면서 경고를 내리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루카 12, 46) 희랍어로 ‘처단하다’는 말은 ‘두 쪽 내지 두 동강 내어 자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분노, 미움, 우울 등의 마음 도둑들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몰아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아는 어느 날 갑자기 두 동강이 나고 말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자아분열이라는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우리 본연의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인간 본연에 맞는 일이란, 우리 자신이 부족한 그 자체로 하느님의 모상임을 알아 당당하게 내세우고, 그에 걸맞게 신앙의 결단을 통해 마음을 가꾸어 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 줍니다. (의정부 신기배 신부님 강론중에서)

공지사항

- 8 월달 본당에서 있게 될 **복가주 성령대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좋은 대회가 되도록 **묵주의 9 일 기도를 6월 25일 부터 8 월 17 일 까지 54 일간 바칩니다.** 여러분의 중재기도로서 참석하시는 많은분들이 성령의 인도로 변화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기도에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평일 미사에 한번씩은 꼭 바쳐 주십시오.
- 복가주 성령대회의 접수가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많이 참석하여 은혜받을 수 있도록 주위에 권유해 주시고 모든 성령 가족들은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상 기도

관상 기도는 성세의 은총과 정기적인 거룩한 독서로부터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이다. 우리는 기도가 사고와 감정이 언어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 가지의 표현일 뿐이다. 관상 기도는 사고와 단어와 정서를 넘어서서 절대 신비가 신 하느님께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열어 드리는 것이다.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사고보다 더 가까이 계시며, 선택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그 하느님께 우리의 인식을 열어 드리는 것이다. 관상 기도는 우리가 동의하기만 하면 하느님과 일치될 수 있게 우리를 내적으로 정화시켜 주는 과정이다.

향심 기도의 방법

향심 기도는 거룩한 독서로 시작된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깊게 해 주도록 만들어 진 것이며, 관상 기도의 은총에 우리의 기능들을 준비 시켜 줌으로써 관상 기도를 촉진시키게 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예전의 가르침(예를 들면 무지의 구름, The Cloud of Unknowing)을 현대적 형태로 제시하면서 거기에 어떤 순서와 규칙을 부여하여서 만든 것이다. 이것은 다른 기도를 대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도들을 새롭고도 완전한 각도에서 조명하도록 동의한다. 그리고 다른 시간에는 우리의 주의가 나의 밖으로 옮겨가서 모든 것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발견한다.



내 어린 양떼들아, 조금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하늘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시기로 하셨다."
 "너희는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헤어지지 않는 돈지갑을 만들고 축나지 않는 재물 창고를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먹는 일이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 놓고 준비하고 있어라. 마치 혼인잔치에서 돌아 오는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되어라. 주인이 돌아 왔을 때 깨어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행복하다. 그 주인은 띠를 띠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을 들어 줄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녘에 오든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생각해 보아라. 도둑이 언제 올지 집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 오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사람의 아들도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니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 지금 이 비유는 저희에게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저 사람들도 모두 들으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고 묻자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어떤 주인이 한 관리인에게 다른 종들을 다스리며 제때에 양식을 공급할 책임을 맡기고 떠났다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과연 충성스럽고 슬기로운 관리인이겠느냐? 주인 돌아 올 때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이 아니겠느냐? 그 종은 행복하다. 틀림없이 주인은 그에게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려니 하고 제가 맡은 남녀 종들은 때려 가며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하여 세월을 보낸다면 생각지도 않은 날 짐작도 못한 시간에 주인이 돌아 와서 그 종을 동강내고 불충한 자들이 벌받는 곳으로 처넣을 것이다.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몰랐다면 매맞을 만한 짓을 하였어도 덜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돌려 주어야 하며 많이 맡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내어 놓아야 한다."

1분 명상

“성모승천대축일의 의미”

성모승천은 성모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 모두가 하늘로 들려 올라감을 말하며, 동시에 하느님의 충만한 영광에 들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 교회의 4 대 의무축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축일입니다. 1950년 교회는, 성모승천을 ‘믿을 교리’로 선포하면서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영예와 공경을 바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하느님 말씀에 순명을 다하고 일생을 바침으로써 구원사업에 훌륭한 협조자가 되신 마리아를 모든 신앙인의 모범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교황 바오로 6 세는 지난 1974년 발표한 교황 권고 <마리아 공경>을 통해 성모승천 대축일을 “그리스도를 닮은 마리아와 완전하심과 복되심을 기념하는 축일”로 정의하면서 “성모승천은 인류 구원 역사가 완성될 때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위로와 희망의 표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성모승천 대축일을 지내는 모든 신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일생을 하느님께 순명한 마리아를 모범으로 삼아 일상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하겠습니다.

성모 승천 대 축일 은 의무 축일입니다.

저녁 7 시 30 분에 본당에서 미사가 있으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